약속♥은 이루어진다

눅 2:25-38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 중 하나는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①) 혹은 (①)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채결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는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맛집에 가면 대부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먼저 함께 온 일행들과 담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개중에 줄이 빨리 줄지 않으면 다른 식당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론]

1. 잘 기다리다 중간에 (②)로 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부부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75세 때 받고,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86세 하갈을 통해 (③)을 낳는다. 이 일로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결국 하갈과 (③)이 광야로 쫓겨 났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④)년 동안 침묵하셨다. 결국 그 갈등은 후손들에게 번져 지난 약 4천년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중동문제'의 불씨가 됐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2. (⑤) 사람들도 있다.

복음서 중, 본문에만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다. 이 경건한 두 노인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야가 성전에 나오시는 날까지 그들은 평생을 기다린 것이다. 시므온은 어둡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끈질기게 기다렸고, 또 안나는 결혼한지 7년만에 남편과 사별 후, 무려 84년 동안 외로움과 고통스런 시간들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주야로 금식과 기도 중심으로 살면서 끈질기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맞이 하였다.(vv. 28, 29)

3. 약속의 성취를 (⑥) 사람도 있다.

야곱(창 48:21)과 요셉이다.(창 50:24-25) 창문과 거울은 그 재질은 같다. 거울은 오직 '나'만 보여준다. 그러나 창문은 '창문 너머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셋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가? 조급한 마음의 약속의 성취를 그르친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긴장이 풀어지고 자세가 흐트러진다. 마치 열 처녀가 각기 등불 들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던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지체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⑦)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고 말씀한다.

[결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성경의 중심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실 예수(He will come), 오신 예수(He has come), 다시 오실 예수(He will come again)시다. 이 중 두 가지 약속이 (⑧)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⑨)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고 받은 인사말을 함께 나누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⑩)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적용 및 기도]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자.

-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가?

-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